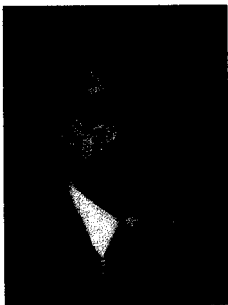


백제문화권 개발과 충남 발전

윤 용 혁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1. 머 리 말

93년 6월 11일 정부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충남도의 공주, 부여를 포함하는 몇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 하였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오랜 도민의 염원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개발 사업의 추진에 중요한 계기를 만든 것이었다. 뒤이어 94년 10월 12일에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어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개년에 걸친 1조 5천 65억의 투자 계획도 발표 되었다.

금년 1995년은 본격적인 백제문화권 개발의

원년이 되는 셈이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하여 1월 1일부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가 발족 되기도 하였다. 현재로서 이 사업에 대한 도민의 기대는 매우 높아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동안의 경과와 경험 등으로 우려 또한 없는 것이 아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이라는 정부의 공약은 이미 1978년에 있었던 것이나, 여러 차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시적 결과가 빈약 했기 때문이다. 더우기 투자 계획 예산은 대부분 지방비와 민자를 계획하고 있고, 국비 투입 계획은 전체의 18%에 불과하여 이것이 속빈강정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한 기대는 지역개발과 문화발전을 염원하는 충남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백제문화권 개발은 크게 두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백제문화의 내용을 입증하는 당시의 문화 내용을 잘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 창달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그 첫째 의미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백제문화에 대한 학술적 조사와 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백제문화권 개발이 갖는 두번째 내용은 지역

개발적 측면이다. 백제문화의 보존 정비는 단순히 문화개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 수요에 의한 경제성의 증대와 지역개발로 연결되는 부수적 효과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이다. 백제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연결 도로망의 정비, 제반 편의시설의 확충이 당연히 뒤따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곧 지역개발적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바야흐로 본격적인 추진기를 맞게된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에 대하여 특히 학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그 문제와 보완에 대하여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백제문화권 개발과 '종합개발사업'

민족문화 유산의 보존 정비를 통한 종합개발 사업은 먼저 신라의 도읍이었던 경주에 대하여 시작 되었다. 1972년부터 대략 10년 간의 사업으로 경주는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나름대로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공주, 부여 등의 백제문화권 지역은 문화재 자원의 상대적 빈약성, 문화재의 분포가 서울, 공주, 부여, 익산 등으로 흩어져 있는 점 등 몇가지 이유로 개발의 우선 순위에서 뒤쳐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은 오늘에까지 미루어지게 되었다. 백제문화권에 대한 정부의 개발 계획은 백제 문화

유적의 보존 정비 이외에 방문객 관광객의 유치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문화, 관광시설의 설치를 포함하고 있다. 고평리 일대에 계획된 공주문화 관광단지, 그리고 부여 규암면의 백제역사촌 조성 등이 그것이다. 공주단지의 경우 위락 휴양 기능을 중심으로한 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고, 부여는 백제문화의 여러 내용을 재현하는 '역사 재현촌'과 문화 계승을 뒷받침하는 '연구교육촌'으로 구성하게 된다. 공주와 부여에서의 이같은 대규모 단지는 '백제 큰길'로 연결하고 그 사이에 관광농업단지(공주 탄천면 분강리), 노인휴양촌(공주 이인면 운암리), 청소년 수련촌(공주 정안면 내문리), 오토 캠프촌(공주 탄천면 견동리), 기업연수촌(공주 탄천면 대학리), 금강 뱃길 조성 등을 '종합개발사업'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¹⁾

관광적 측면이 중심이 된 이같은 '종합개발사업'은 대체로 1991년 건설부에서 수립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기본계획 조사'에 의거하고 있으며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타당성 조사'(충청남도, 1991. 12)를 거쳐 특정지역 공시 이후인 1993년 12월에 종합개발 기본설계가 완료 되었다.

공주시 웅진동 고평리의 부지 약 40만 평에는 공주문화 관광단지가 들어서도록 계획되어 있다. 여기에는 숙박시설, 상업시설, 스포츠시설, 유흥 휴게시설 및 공공시설이 예정되어 있다.²⁾ 종래

1) 백제문화권 개발과 관련한 관광 중심의 이같은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간략한 개요를 종합 정리하여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충청남도)이라는 홍보 자료가 간행되어 있다.

2) 공주문화 관광단지에 투자되는 예산은 1,823억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중 국비 등의 공공 부담은 632억, 민자 유치 1,191억으로 되어 있다.

백제문화권 방문객들에 있어서 공주, 부여가 통과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문화 유산의 개발과 관광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방문객의 체류를 유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주문화 관광단지가 계획된 곰나루는 백제시대 공주의 옛이름 ‘웅진(熊津)’의 발상지이며 백제 당시 도성 웅진과 연결되는 수로의 관문으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특별한 곳이다. 무령왕릉과도 지근(至近)의 거리 있으며 시내에서 이전하여 복원한 조선시대 공주목의 동헌과 충청감영의 건물들이 바로 인근에 자리한다. 단군신화의 웅녀를 연상시키는 곰나루의 전설과 소나무숲도 꼭 의미있는 곰나루의 소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주 문화단지의 개발에 있어서는 백제적인 내용이나 곰나루의 역사성이 반영 되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곰나루가 금강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지의 개발에 있어서도 금강 개발과 연계하여 상호 보완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여 규암면 합정리 일원에는 약 100만평 부지에 백제역사 재현단지가 계획되고 있다. 30만평 규모의 역사 재현촌, 연구교육촌 20만평, 그리고 50만평은 녹지지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³⁾ 이 계획은 백제권개발의 가장 중요한 역점 사업의 하나라 할 수 있는데 이미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실시 설계를 위한 고증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기본설계에 제시된 백제역사촌의 구성 계획

은 백제의 역사를 방문객이 직접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7개의 기능별 역사촌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개국촌 : 백제 개국초의 생활상 재현

왕궁촌 : 백제의 왕도 입지, 궁궐 등의 모습을 재현

전통민속촌 : 백제마을, 충남의 전통 마을, 그리고 다른 나라의 마을을 비교마을로 복원

산업교역촌 : 전통 농업, 공업, 상업의 발전과정 재현과 특산물 판매장

군사통신촌 : 백제시대의 무기와 축성 등

풍속종교촌 : 백제 이래 충남의 전통민속 행사를 통한 불거리 제공

장제묘지촌 : 백제의 장제와 묘제 재현

이같은 백제역사촌 설치계획은 백제문화권에 대한 매우 인상적인 교육 및 관광의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극히 주목된다. 이 계획은 향후 실시 설계를 위한 고증작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시 기대하여 볼 일이지만, 백제문화에 대한 자료와 지식의 빈약이라는 현실 때문에 장애 요인이 없지 않을 것이다. 위의 계획에서도 가령 전통민속촌이나 산업교역촌 같은 경우는 아예 백제시대라는 시대 개념에 구애받지 않고 구성될 것을 전제하고 있거니와 역시 자료적 한계를 어떤 아이디어로 극복

3)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홍보자료).

4)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기본설계 보고서(백제역사촌), 1993, pp.114-120.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백제역사촌과 관련하여 계획중에 있는 연구교육촌 역시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업이다.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구상의 윤곽은 백제문화의 계승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교육연구 시설의 도입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⁵⁾

- 문화 예능계대학 설치 : 백제역사 문화를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기능 인력 양성⁶⁾
- 관광교육원 설치 : 관광 종사자에 대한 연수기관
- 백제문화 관련 연구소 설치 : 백제공예연구소, 문화유적 발굴연구소 등
- 예술인의 마을 조성

이들 개발사업의 재원은 상당 부분을 민자 유치의 의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본 사업의 성패가 결국 민자 유치의 규모에 의하여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고, 따라서 국비 등의 공공 투자도 이같은 점에 초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자 유치로 계획되고 있는 사업중에서도 처음부터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가령 연구교육촌 조성의 핵심 내용이 되는 대학의 설치 등이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공주 및 부여의 단지 조성 사업은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첫째는

민자 유치에 의하여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둘째는 그 결과 수익성의 우선적 고려가 사업의 구체적 진행 내용까지 영향을 크게 미침으로써 백제권 개발이라는 원래 의도가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그것이다. 특히 고증의 한계 등 백제문화 재현이라는 사업의 달성이 쉽지 않은 여건 때문에 이같은 우려는 더욱 커진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사업은 민자 유치의 촉진을 위해서나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나 국비 부담의 투자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3. 백제문화권 문화재 정비의 문제

백제문화권 개발은 백제문화라는 역사적 실체에 우선적으로 기초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백제문화권의 개발에 있어서 백제문화의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관련 유적의 보존 정비문제야말로 백제문화권 개발의 핵심적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백제문화권개발 계획에서 차지하는 문화재 관련 부문의 비중은 기대 이하로 낮게 잡혀져 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총괄되고 있는 문화재 정비사업은 공주지역 22건, 부여지역 25건 등 도합 47건이 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주지역 22건 중에는 장곡사를 비롯한 청양 지역의 문화유적 3건, 그리고 부여의 경우는 보

5)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기본설계 보고서(백제역사연구교육촌), pp.47-59.

6) 기본설계 보고서에서는 그 예로 문과대는 사학과, 고고학과, 관광학과를, 예술대는 음악, 미술, 연극영화 그리고 체육대에 무용, 체육학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 2천명 정도의 학생 규모를 설정하고 있다(위의 보고서 pp.47-56).

령 성주사지가 각각 포함되어 있다. 행정자료에 의하면 47건의 정비 대상 문화재에 대해서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공식화 되었던 1979년부터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져⁷⁾ 94년도까지 47건중 22건의 완료를 보았다.⁸⁾ 그동안 사적지 14개소를 발굴 조사하였고, 이의 보전 정비와 관련하여 사유지 약 10만 여 평과 2백 여동의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백제문화권 사업이 공식화 된 이후 공주, 부여 등을 중심으로한 문화재의 조사, 정비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조사 정비 작업은 일반적인 문화재 관리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한 것으로서 백제문화권의 개발이라는 대전제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특히 개발 가능성이 높은 특정 단위 유적에 대하여 큰 예산을 투입하여 중점 정비하는 일들은 앞으로의 큰 과제로 남겨져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문화유적의 조사 복원 정비 등의 작업에 상당한 투자가 요구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개발과 관련, 계획된 문화재에 대한 투자 규모는 약 340억으로서 전체 계획 1조 5천억의 2.5%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백제문화권 개발의 향후 방향과 성격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⁹⁾ 공주문화 관광단지 조성 및 부여의 백제역사 재현단지 사업에 민자를 포함하여 각각 1천 7백억

전후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는 것에 비교할 때 그 규모의 영세성을 짐작할 수 있다. 백제문화권 개발에 있어서 관련 문화유적의 조사 및 정비를 위한 충분한 재정 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들 유적이야말로 당시 백제문화의 가장 생생한 산 자료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백제문화권의 개발은 문화유적의 조사 정비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충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화유적의 정비 복원 등에 보다 과감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문제 이외에도 현재의 단계에서 백제문화권 문화재 정비사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첫째, 문화유적 정비사업 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 백제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총괄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대상은 대체로 1978년도 공주, 부여지역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에 비하여 문화유적에 대한 지식과 파악 능력은 꽤 달라져 있고, 그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된 유적들도 없지 않다. 또한 대상 가운데는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으로서보다는 일반적인 문화재관리로 취급될 수 있는 것들이 함께 섞여 있다. 또한 학술적 측면 이외에 교육, 관광자료로서의 효용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백제문화권 개

7) 공주,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권 문화재에 대한 그동안(1979-1994)의 투자는 약 326억으로 집계되고 있다.

8) 사업이 완료된 곳은 신관동 석실고분, 감사, 마곡사, 선화당, 선원사 등 공주지역 14개소 그리고 대조사 석불, 운산 별신당, 천왕사지, 백제 왕궁지 등 부여지역의 8개소 등이다.

9) 대전일보, 1994. 8. 29자 기획 기사.

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대상을 재검토하여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백제문화권 사업으로서의 문화재 정비 사업은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문화재의 조사 정비작업은 가시성에 집착하여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은 금물이다. 그러나 핵심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중점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백제문화권 사업으로서의 정비 대상 문화재를 일반 관리 대상과 분리하여 중점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혹은 재정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주요 사적일수록 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이 많고, 그 장애가 문화재 외적 부분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의 극복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가령 공주지역의 경우 가장 중점적으로 정비 되어야 할 일차적 대상은 공산성이다. 공산성의 유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한 조사와 정비가 진행되어 왔지만, 성 안 민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성 안 민가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 지역에 대한 유적 부존 상태를 조사 할 수 있고, 유적 조사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보다 종합적인 공산성 정비의 총괄 계획이 가능한 실정에 있다. 문화재의

정비를 위하여 문화재의 문제 이전(以前)에 해결 되어야하는 부담이 많다는 점에서 백제문화권 문화재 정비사업의 특성이 있다.

셋째, 공주, 부여 지역 이외의 백제유적도 사업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백제문화권 문화재 정비사업은 백제 도성이었던 공주, 부여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¹⁰⁾ 청양, 보령 등 인근 지역의 일부 문화재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인근의 몇 유적 일부가 대상에 포함된 근거와 기준은 불분명하다. 공주, 부여에 소재한 문화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분명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재검토,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때 그 대상 범위는 좀더 확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가령 백제문화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서산 마애삼존불을 중심으로 한 주변 불교유적¹¹⁾ 혹은 백제 부흥운동군의 대표적인 항전 거점이었던 임존성 등이 우선 그 대상에 떠오른다.¹²⁾ 공주, 부여 이외의 지역중에서도 백제문화권 개발의 취지에 합치하는 주요 유적은 종합적 검토를 거쳐 개발 대상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중점 정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유적의 산포(散布)를 특성으로하는 백제문화권 개

10) 백제 도성이었던 공주, 부여는 문화유적이 가장 중점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공주 33건, 부여 35건으로, 이들 두 지역이 충청도 전체의 40%이상을 점유하며, 도지정 문화재의 경우도 충남도 234건중 공주 48, 부여 41로서 두 지역이 38%를 점하고 있다. 참고로 95년 6월 현재 각 시군별 주요 지정문화재 현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충청남도, 문화재목록, 1995)(괄호 밖은 국가지정, 괄호 안은 도 지정임).

천안	8 (7)	공주	33(48)	보령	7(11)	아산	12(10)	서산	11(9)
계룡	0 (2)	금산	4(7)	연기	3(7)	논산	11(33)	부여	35(41)
서천	8 (9)	청양	9(5)	홍성	6(12)	예산	10(16)	태안	3(10)
당진	8 (7)							계	168(234)

발의 내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¹³⁾

백제문화권의 문화유적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 덧붙일 것이 있다. 그것은 주요 유적의 주변환경에 대한 보전 문제이다. 백제권 문화유적의 정비는 단순히 문화재 자체의 정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정비까지를 포함하는 매우 종합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유적지 및 그 주변의 환경을 보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쏟지 않으면 안된다. 때문에 주요유적 주변에 대한 개발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고 가능한 주변 경관의 보전과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가령 백제큰길과 같은 새 도로의 개설에 있어서도 도로 개설의 경제성만을 계산할 경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적지의 주요 경관과 환경, 그리고 주변에 매장된 문화재의 파괴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경관과 환경을

고려하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4. 백제문화권 개발 자원의 확대 방안

백제문화권 개발과 관련하여 이의 힘있는 추진에 장애가 되어왔던 내적인 딜레마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백제문화권이 신라에 비하여 현재 남아 있는 유적, 그리고 알려진 역사지식이 빈약하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전문가의 수적인 빈약성이다.¹⁴⁾

백제문화권 유적의 상대적 빈약성은 우선 백제가 치열한 전쟁에 의하여 멸망되었던 역사적 조건에서 찾아질 수 있겠다. 그러나 백제의 유적 및 자료의 빈약성을 신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꼭 위험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 11) 서산 마애삼존불로부터 1.5킬로 거리에는 사적 361호 보원사(普願寺) 절터가 있다. 9미터 높이의 5층 석탑(보물 104호)을 비롯하여 고려시대의 석조(보물102호), 당간지주(보물 103호), 법인국사 부도(보물 105호), 법인국사 부도비(보물 106호) 등 석조 유물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마애삼존불을 찾는 방문객이 반드시 들리는 코스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절에서는 높이 2.5미터의 고려조의 철불좌상(鐵佛坐像)과 함께 1968년에 백제시대 제작의 금동불(높이 9.3센티)이 발견됨으로써 백제시대 창건의 절로 인정되고 있으나 아직 정식 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수덕사(국보 49호 소재), 예산 화전리 백제사면석불(보물 794호), 혹은 태안의 마애삼존불(보물 432호) 등도 서산 마애삼존불을 중심축으로 하여 하나로 묶을 수 있다.
- 12) 예산군 대흥면과 광시면, 홍성군 금마면에 걸쳐 있는 임존성(사적 제90호)은 당군에 저항한 백제 부흥군의 주요 거점이었던 역사적, 문화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조사인 지표조사조차 시행된 바가 없다. 또한 백제 부흥군의 거점인 주류성으로 추정되기도하는 서천의 건지산성(사적 제60호)이나 개백의 결전장이었던 황산벌 등에 대해서도 학술적 조사를 선행함으로써 백제유적으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 13) 백제문화권 개발이 백제문화 계승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할 때, 백제문화의 개념도 보다 포괄적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백제의 부흥운동이나 관련 사적이 좀더 주목 되어야하며, 아울러 백제 계승의 정신으로 후대에 제작된 문화재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문화재 중에서 백제문화의 내용이 가장 직접적으로 후대에 계승된 사례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백제식 석탑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비인 5층석탑(보물 224호), 부여 장하리 3층석탑(보물 184호), 계룡산 청량사지 쌍탑(남매탑)(충남도 유형문화재 1호) 등이 그것이다.

백제는 기원을 전후한 무렵부터 7세기 후반까지의 국가였던 데 비하여 신라는 그후 10세기 초까지 지속된 국가였기 때문이다. 거기에 백제의 도읍은 한강유역으로부터 금강유역의 공주나 부여로 여러 번 옮겨졌고, 분명하지는 않으나 금강하류의 익산에 별도(別都)가 경영 되는 등으로 유적의 분포 또한 보다 산포성(散佈性)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백제 유적이 가장 풍부하게 잔존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부여의 경우도 도시의 존속은 120여 년에 불과하며, 그나마 나당군에 의하여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사실 도읍이 시종 그대로 유지되었던 경주의 경우를 보더라도 삼국기의 유적이 그렇게 풍부한 것이 아니다. 널리 알려진 신라의 문화재, 가령 불국사, 석굴암, 안압지, 포석정 등은 삼국 이후 통일기의 것들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백제 자료의 빈약성을 신라와 평면 비교함으로써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 관광자원으로서 백제 유적의 정비도 도모함에 있어서 자료의 미흡함은 몇가지 방법으로 상당 부분 그 보완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 첫번째 방안은 백제문화권에 소재한 타시기의 유적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즉 백제이전의 유적 혹은 백제 이후의 주요 유적 중에서 적합한 문화유적 자원을 백제문화권 개발의 일환으로 중점 개발하는 것이다. 가령 백제 이전의 선사 유적으로서 금강변에 있는 공주 석장리 구석기유적이나 청동기시대 우리나라 대표적 유적의 하나인 부여 송국리유적, 혹은 조선시

대의 분청사기 도요지인 공주 학봉리 요지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이중에는 이미 백제문화권 사업의 범주안에 들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들 유적은 단순한 학술적 자료로서의 중요성 이상의, 관광 교육자원으로서의 개발의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중점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백제문화권 유적과 개발 자원의 확대를 위한 두번째 방안은 공주, 부여의 지정지역 인근에 있는 백제유적을 중점 개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유적의 산포성(散佈性)이라는 개발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도로 교통 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을 예상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점 개발 대상에 넣을 수 있는 유적으로서 예산의 임존성 혹은 서산 마애불의 예를 앞에서 들었지만, 이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유적이라 하더라도 개발 가능성을 여러모로 모색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서 논산의 경우는 공주, 부여를 제외하면 가장 풍부한 백제고분의 분포지로서, 가령 백제 고분공원과 같은 유적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유적의 매장상태, 교통 등의 지리적 입지, 주변 경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백제고분 집중지역을 발굴조사한 후 이를 고분공원으로 조성하고 출토된 유물을 현지에서 관리함으로써 현장감을 높이는 것이다. 백제고분 공원은 그 한 예를 든 것이지만, 다른 유적의 경우도 그 개발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은 백제문화 자료의 상대적 빈

14) 자료부족과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백제문화권 사업과 관련한 이같은 두가지 문제점은 이미 지역신문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대전매일, 94년 6월 7일자 '백제권개발 특정지역 지정 1년'(5).

약성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백제문화권 개발의 자료를 풍부하게 하는 세 번째 방안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유적을 확인하는 것이다. 부여에서의 백제 금동향로의 발굴에서 보는 것처럼 지하 매장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계속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백제문화권 개발의 자원을 확대하는 또하나의 방안은 개발지역의 환경과 경관을 개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자원은 금강이다. 경주의 경우 문화유적의 집중성 등 개발의 조건상 백제권보다 좋은 점들이 있지만, 금강이야말로 경주가 갖지 못한 천연의 귀중한 개발 자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백제문화권 개발과 관련한 금강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되고 강조될 필요가 있다.

백제문화권과 관련한 금강의 중요성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금강의 역사성이다. 금강은 백제시대 서울과 지방, 그리고 백제를 국제적으로 연결시킨 가장 중요한 교통로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의의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백제문화권의 가장 중요한 유적을 금강을 그 입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주의 공산성이나,

무녕왕릉, 곱나루, 부여의 부소산성이나 구드레 등은 금강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다. 셋째, 백제문화권 개발에 있어서 금강의 경관은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은 계속 파괴되어가고 있다. 최근 수 년동안 공산성과 왕릉 주변 금강에서는 모래 채취가 지속적으로 허용됨으로써 백제문화권 개발의 가장 중요한 지점의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한 손으로는 백제문화권 개발을, 그리고 한손으로는 백제문화권의 파괴를 동시에 진행해 온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¹⁶⁾

5. 전문가 양성과 전문기구의 문제

백제문화권 개발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한가지 문제는 전문가 집단의 수적 빈약성과 관련 연구 업무가 조직화 되어 있지 못한 점이다.

백제문화 연구는 세분된 분야별 전공자의 총이 빈약한 데다, 지역에 근거한 전문연구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백제문화의 학술적 부분은 현장과 멀리 있는 타지역 연구자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그나마도 구체적인 사업 진행에 있어서 고충의 수준이 쉽게 한계에 부딪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같은 근원적 문제는

15) 금강 개발과 관련하여 백제문화권 사업 계획중에는 공주-부여중 15킬로의 '금강 뱃길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 선착장, 수중보 및 부대시설의 정비에 민자를 포함하여 116억을 계산하고 있다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계획, 홍보자료). 금강변 고수부지의 개발과 주변 환경의 정화가 이에 우선해야 할 것이나 아직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6) 금강 개발은 백제권 종합개발 사업중에도 공주, 부여 구간중 15킬로의 뱃길을 조성하고 선착장, 수중보 등의 시설이 제시되어 있다. 1992년도에도 충남도에서 금강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한 바 있으나, 아직은 가시화 된 작업을 볼 수 없다.

지역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문헌자료가 한정되어 있는 백제문화 연구에 있어서는 자료의 신출(新出) 가능성이 높은 고고학 혹은 미술사 분야의 다양한 문화재 전문가와 지방사와 백제역사 민속 등 주변 학문의 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문화재 연구의 과학기술적 접근이나 보존과학의 중요성 또한 매우 높아져 있다. 그러나 전문 연구자의 빈약은 백제문화에 대한 다양한 고찰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전문가는 백제 고고학이나 미술사, 백제의 역사 혹은 한일고대관계사 등 순수 학술 분야는 물론,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문화재에 대한 학술적 성과를 유적의 교육적, 관광적 효용을 가미하여 개발하는 문제 등 문화재에 대한 실무적 내지 응용적 전문가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경우는 문화재의 관리나 과학적 보존, 혹은 이의 응용적 측면을 중심으로한 특성있는 학과의 신설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존의 관련 연구기관을 지역적 특성화의 한 방편으로 적극 지원하는 대학 자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양한 전문가층의 부재 요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전문가들이 양성될 수 있는 직장으로서의 전문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학에서 전공자를 배출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공업무의 직종으로 연결되지 못할 때 실제 전문가의 양성이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로서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

반이 되는 관련 전문직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백제문화권과 주변 소재의 대학에서 관련 학술직을 확보함으로써 대학의 연구기능은 지역의 현실적 필요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학술적 작업을 통한 지역사회에의 기여는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학술적 봉사라는 점에서도 대학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학내에서의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는 썩 미흡한 것이었다. 이는 학생에 대한 교수업무에 중점을 두는 대학이 갖는 일반적 틀의 제약에서 크게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가 및 조직화된 기구의 결여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 백제문화권 개발, 그리고 충남지역이 갖는 문화적 특성의 고양을 위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학술적 업무를 보다 중점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설치 문제도 적극 검토해 볼만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까지 각처, 각 기관에서 산발적 부분적으로 진행해 오던 문화재의 조사 업무, 백제문화와 충남의 역사적 전통에 대한 연구 업무,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관리 업무, 그리고 문화재 정비 복원에 관한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명실공히 백제문화의 본산 충남의 긍지를 지켜나가는 기반 작업기관으로 특성화하는 방안인 것이다. 기존의 관련 기관이나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백제문화권 개발과 관련한 전문가 양성, 혹은

충남의 지역적 특성에 입각한 학술문화기구의 설치 문제와 함께 일선 문화재 행정의 전문화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재 행정 업무에 전문인을 충원하도록 하는 일이 그 구체적인 방안이다. 이외에도 백제문화와 지역의 향토 문화에 대한 시민적 이해가 점점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그동안의 계획과 사업은 소수의 행정 혹은 전문가의 참여만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이들 사업이 실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협조가 뒷받침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백제문화의 의의와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시민들의 깊은 애정과 이해가 앞으로 더욱 요구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행정기관과 연구, 교육기관과의 상호 긴밀한 협력이 더욱 요망된다.

6. 백제문화권 개발과 충남발전

백제문화권 개발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두 가지 사항을 더 논의하고 싶다. 하나는 백제문화권 중심 개발지역인 공주, 부여와 인근 지역과의 연계 문제, 그리고 백제문화권의 개발 효과를 증폭 시키게될 연결 교통체계 문제이다.

백제문화권 개발을 위한 특정지역 지정이 충남의 경우 공주, 부여 등으로 한정하게 된 것은 백제문화권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엄격히 말하여 백제문화권의 개발은 충남의 지역 발전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문화 유산의 개발이라는 국가 정책에 토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백제문

화권 개발의 부수적 결과가 충남의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되리라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백제문화권 사업이 백제의 도움이었던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더라도 그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주요 사적의 개발에 있어서 공주, 부여 이외의 대상을 포함해야 하고, 둘째, 백제문화권이 갖는 교육적 혹은 관광적 특성을 인근 지역과 연결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은 충남의 지역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제문화권이 갖는 관광자원은 주로 문화재를 중심으로한 역사자원이 되고 있다. 이것은 관광자원으로서는 매우 딱딱하고 학습적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다른 성격의 관광자원을 이와 연계 개발토록 함으로써 방문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충남 서부지역, 북부지역의 경우 온천 및 해안의 휴양시설이 특히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백제문화권 개발은 주변지역과의 긴밀한 연계에 의한 개발이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같은 이중적 연계에 의하여 백제문화권 개발은 지역개발로서의 효과를 함께 가질수 있게 될 것이다.

백제문화권 개발은 일반적으로 신라권에 비하여 개발의 여건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백제권은 개발의 유리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첫째, 서울과의 근접성 및 다른 지

역과의 상대적인 지리적 위치, 둘째, 금강과 같은 천연적 자연자원의 존재, 셋째, 인근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 등이 그것이다. 문화유적의 양적인 문제 역시 몇가지 방안에 의하여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발여건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연결 교통체계 등의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백제문화권의 개발은 민족문화 형성 원류로서의 백제문화의 보존 및 이의 자원으로서의 활용에 목적이 있다. 이는 경주개발에서 보는 것처럼 현실적 측면에서 교육,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간접자본 투자에 의한 효율적 접근로의 해결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더우기 백제문화권이 민자 유치에 의한 개발을 크게 의존하는 경우 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백제문화권에 대한 연결 교통체계는 간단히 요약하면 대전과 서울로부터의 접근이 우선 용이해야 한다. 대전은 백제문화권과 50킬로 전후의 근접한 도시이면서 인구 1백만이 넘는 대도시이다. 동시에 타지역과의 교통이 원활하여 대전 경우에 의한 관광객의 확보에 유리하다. 서울은 거리상으로 다소 떨어져 있지만(서울-공주 130킬로) 인구 1천 만이 넘는 초대도시이고 국외로부터의 방문객이 유입되는 지점이다. 대전 및 서울과의 효율적인 연결로를 확보하지 않는 한 백제문화권의 개발은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

교통의 수단은 도로교통, 철도, 그리고 공로(空路)가 있다. 대전의 경우는 백제 문화권 지역과 근접거리이기 때문에 원활한 도로교통의 정비가 유효하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는 철도와 고속도로에 의한 연결이 요구된다. 한편 공로(空路) 이용의 급격한 증가와 국외 연결을 고려할 때 공로 이용이 가능한 인근 공항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백제문화권은 대전 및 서울과의 육로 교통체계 및 공로 등 편의성 높은 접근로는 현재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다. 대전과 백제문화권은 여전히 편의성이 낮은 구도로에 의존하고 있고 이 때문에 그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오히려 단절성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더우기 백제문화권은 대전과 충남의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연결점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¹⁷⁾

서울과 백제문화권은 지리적으로 서울권과 호남권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고 이 때문에 역사시대 이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도로 체계는 이같은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성 높은 위치로서의 지리적 성격이 여전한함에도 불구하고 근대에 이르러 인근 대전권의 상대적 성장 때문에 철도, 고속도로 등 새로운 교통로의 재편 과정에서 배제됨으로써 탈락해버리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백제문화권이 갖는 특별한 지리적 이점과 경제성이 사장되어 버렸던 것

17) 충남 도청이 소재한 대전은 지리적으로 충남지역의 동쪽 끝에 치우쳐 있는 데다 철도 교통의 동장과 관련하여 대두한 신흥 도시로서 근년까지도 충남 여러 지역과의 연결로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충남 도청 소재지로서의 대전이 갖는 이러한 지리적 역사적 특성은 결과적으로 충남의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이다. 그리고 공로(空路)의 측면에서 본다면 백제문화권이 위치한 충청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공항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¹⁸⁾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연계라는 점에서 경제적인 지역이 교통체계 상으로도 가까워야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더 불편하고 멀어야 한다는 것이 역설적인 백제문화권의 현실이다.

이점에 있어서 경주의 경우 서울로부터의 원격성에도 불구하고¹⁹⁾ 철도 및 고속도로, 그리고 공로(울산 및 포항공항)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주는 대구, 부산 등 주변 대도시와도 역시 다양한 교통체계로 근접성이 높여져 있다. 이는 경주의 지리적 편재성(偏在性)에도 불구하고 신라권 개발을 위한 특별한 의도 하에서 일부터 이를 연결시킨 것이었다. 경주지역 매장 문화재의 훼손 문제로 현재 노선의 도심 통과 여부가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경부 고속철도 역시 경주 통과를 거의 기정화되어 있다.

백제문화권 개발과 관련된 교통로의 문제로서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 대전-서산간 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공주-부여를 연결하는 백제 큰길 등이 개발의 전제로서 논의되고 있지만 서해안 고속도로와 백제 큰길을 제외한 여타의 사업은 아직

은 탁상 위의 작업으로 그 완공을 가늠하기 어려운 것 같다.

경주가 지리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에 비하여 공주, 부여의 백제권은 지리적으로 서울(경기)과 호남을 연결하는 경제성 높은 지역이며 대전과 충남의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 이같은 백제권의 특별한 지리적 여건은 백제권 개발의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요교통망과 연결되는 이같은 접근로 확보의 당위성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아직 해결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백제권 개발의 성패와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명확한 일이다.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의 기대는 이같은 현실적 부조리의 해결에 대한 기대가 함께 섞여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7. 맺 는 말

백제문화권 개발은 충남이 갖는 역사적 전통에 근거한 일종의 문화 개발사업이다. 백제문화가 한국의 전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입각하여 정부는 오래전부터 그 개발을 거듭 약속해왔고, 이제는 좀더 본격적인 사업이 예정되고 있다. 충남은 지역발전의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에 있어서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백제문화권이라는 문화개발이 곧 지역개

18) 참고로 서울을 제외한 12개 지방 공항의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강원(속초), 호남(광주, 목포, 여수, 군산), 영남(대구, 부산, 울산, 포항, 진주, 안동), 기타(제주).

19) 서울과 경주는 고속도로 거리로 362km임.

발의 촉매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또한 지역민들의 정서이기도 하다.

백제문화권 개발이 문화개발이라는 점에서 백제문화의 재현이라는 본래의 의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문화재, 사적 등 백제문화 유산에 대한 충실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보존 정비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의 진행 경향은 이와 같은 본령(本領)보다도 가시성(可視性)을 노린 몇가지 '사업'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느낌이다. 좀더 부연하자면 백제문화권 개발에 있어서 백제문화 유산, 그리고 충남 전통문화 유산에 대한 문제가 사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하고 그에 상응하는 실제적 조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가 확실히 점검되고 보완되지 않으면 백제문화권 사업은 길어야할 것이 짧고, 짧아야할 것이 길어진 기형적 모습이 될 것이다.

백제문화권 개발에 장애가 되어온 몇가지 요인, 자료의 빈곤, 전문가의 빈곤 등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문제이다. 자료 빈곤의 극복을 위해서는 단위 유적간의 연계를 강화하거나 개발효과가 높은 유적을 보다 중점 개발하는 한편, 새로운 개발자료를 모색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동시에 문화유적의 개발에 있어서는 공주, 부여 등 특정지역으로 그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전문가의 양성과 문화권 개발을 뒷받침하는 연구 기능의 강화는 장기적인 앞날을 위하여 진지하게 방법을 모색할 문제이며 이를 위하여 백제를 중심으로한 지역 전통문화 유산에 대한

종합적 조사, 연구, 보존, 정비 업무를 위한 학술문화 기구의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백제문화권 개발이 기능적인 면에서 성과를 갖기 위해서는 문화재와 재현단지 등의 관련 사업 이외에 서울, 대전 등 타지역과의 연결도로 체계가 대폭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논의되거나 계획되어 있는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관련 사업은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대되고 있고, 이에 상응하여 문화산업이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확대해가고 있다. 백제 이래의 전통문화 유산을 그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충남은 이같은 자원을 보존하고 지역개발의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충남의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의 미래에 공헌하는 한 길이 될 것이다. 